

(Session III) Redesigning the Contours of the Future Financial System (금융시스템의 발전방향)

- 위기 이후 기존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,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.
 - 금번 금융위기를 통해 규제와 감독체계상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는데, 기존 시스템은 전체적 위험보다는 개별적 위험의 관리에 너무 치중한 것으로 판단됨.
 - 또한, 위험을 수반하는 레버리지의 확대와 과도한 금융혁신은 높은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나, 장기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최근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.
 - 다만, 규제 강화로 위험이 축소될 경우 금융시장과 실물경기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으나,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이 완만해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, 이런 맥락에서 금융 규제 및 감독의 강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

- 개별적 기관에 대한 규제는 시스템 리스크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규제에 대한 기본 철학이 변화된 가운데, 규제에 대한 시각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을 줄이고 대처 능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.
 - 규제에 의한 경기변동을 확인하고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대형 복합 금융기관(Large and Complex Financial Institutions)을 관리하는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규제의 틀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강화
 - 자본규제 확대,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개선, 공시요구 확대 등을 통해 미시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점진적으로 규제환경이 변화되고 있음.
 - 최근 위기 상황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금융시장의 투명성 확보는 중요하며, 이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키고 금융기관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임.
 - 한편, 국제금융거래(cross-border financial transactions)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별적인 틀에서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수준이나,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협의 및 공조 강화를 통한 일관된 접근이 필요한 부분임.

-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개혁이 시행될 경우 전반적인 위험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, 전 세계적으로 융합된 금융시스템의 혁신과 이익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규제와 감독의 가능성에는 주의할 필요
 - 금융시스템의 복잡성이 위험을 감추고 위기 대응 효과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내포하는 만큼, 복잡한 금융상품을 경계하고 표준화를 유도하는 등 단순성이 강조

- 시스템 위험을 효율적으로 예측하기 위해, 규제 및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거래를 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일부 활동에 대해서는 특정 형태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허락할 것임.
 - 국제금융시장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기는 하지만, 위기 이후 일부 국가에서 국내투자자에 대한 선호 강화, 금융기관의 국유화 등 금융 보호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.
 - 그러나, 국가간 협력의 개선을 통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등 시스템 위험을 관리한다면 금융의 국제화는 진전될 수 있음.
 - 개도국의 경우 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국제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할 것이며, 이 과정에서 선진국에서 안전성이 이미 검증된 금융규제 및 인프라 모형을 선별하여 채택하는 노력이 필요
- 결국, 규제와 감독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금융혁신과 금융산업의 성장 동력도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,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 기반은 강화될 것임.
-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이 요구됨에 따라 은행부문의 위험도는 낮아지고 수익성은 제한되는 반면, 비은행부문의 역할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비은행 부문을 적절히 감독할 수 있는 투명한 규제수단이 마련될 필요
- 한편, IMF는 규제방안의 제시와 실행 감독, 위험의 확대 가능성 경고,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연결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에 동참할 것임.
- IMF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개혁을 지원하는 등 금융규제와 각 정책당국의 실행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, 금융부문의 기준을 제시하는 주요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규제개혁을 준비하고 있음.